

정책연구보고 P26/1998. 2

IMF 관리체제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정일 김명환 김정호 윤호섭 이두순
김용택 석현덕 전창곤 조재환 최세균
최지현 허덕 김병률 김철민 박현태
신승렬, 이성호 조태희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P10084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강 정 일	총괄
윤 호 섭	IMF 관리체제의 배경, 농가부채
조 재 환	농업지표 전망
김 정 호	품목별 소득 분석
이 두 순	화훼
최 지 현	시설과수, 비료
김 병 룰	시설채소
허 덕	축산, 사료
신 승 렬	축산, 사료
김 명 환	곡물
석 현 덕	임업
박 기 환	품목별 경영비 분석
이 성 호	농기계
김 철 민	농약
박 현 태	종자
전 창 곤	유통
최 세 균	수출입
김 용 택	농업재정, 농업금융
조 태 희	농업인 여론조사

머 리 말

우리 나라는 1997년말 심각한 외환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저성장, 고금리,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농업분야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환율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료, 유류,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랐다. 또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 농가로서는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은 감소하고 금리는 오름으로써 부채 상황도 어려워졌다. 농업 관련 산업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부족, 금리 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지난 2개월동안 농촌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IMF 관리체제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서, 특히 단기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원예, 축산, 농자재산업 등 산업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작업이 이루어져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이 보고서가 농업인, 정부, 농업 관련 단체들이 IMF 관리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장조사에서 도움말을 주신 농업인과 관련 단체 임직원, 그리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98.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요약 및 정책제안	1
I. IMF 관리체제의 배경과 영향	
1. 배경	11
2. IMF와의 합의 내용과 파급효과	12
3. 농업지표 변화전망	14
4. 농업인 여론	16
II. 농림업부문의 파급영향과 대책	
1. 시설원예부문	22
2. 축산부문	31
3. 곡물부문	38
4. 임업부문	44
5. 품목별 영향	49
III. 농업관련산업의 파급영향과 대책	
1. 농기계산업	52
2. 비료산업	56
3. 농약산업	59
4. 종자산업	63
5. 사료산업	67
6. 유통부문	71
7. 수출입부문	77
IV. 농업재정금융의 파급영향과 대책	
1. 농업재정	82
2. 농업금융	85
3. 농가부채	88

표 목 차

표 1	IMF 구제금융의 예상효과	12
표 2	정부와 IMF간의 1998년 경제운영지표 합의사항	13
표 3	농업성장률 전망	14
표 4	농축산물 실질가격 변동 전망	15
표 5	농림업취업자 및 농경지면적 변화	16
표 6	IMF 관리체제하 농가의 피해 인지도	17
표 7	작목별 피해 정도	17
표 8	IMF 관리체제 이후 피해 내용	18
표 9	IMF 관리체제하 작목별 피해요인	19
표 10	장래의 영농의향	19
표 11	IMF 관리체제하 품목별 영농의사	20
표 12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대응방안	20
표 13	IMF 관리체제하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	21
표 14	시설원예의 현황과 비중, 1996	22
표 15	시설원예 품목별 주요 중간재비의 비중, 1996	23
표 16	환율 상승에 따른 시설채소 경영비 변화	24
표 17	환율 상승에 따른 시설과수 경영비 변화	25
표 18	환율 상승에 따른 화훼류 경영비 변화	26
표 19	환율 상승에 따른 장미의 수출 경쟁력	28
표 20	전업규모 축산농가수, 1992~97	31
표 21	축종별 경영비와 사료비 비중, 1996	32
표 22	사료가격 인상률	32
표 23	환율 상승에 따른 축종별 경영비 변화 전망	33
표 24	곡물 수급 추세 및 1998년 전망	39
표 25	환율 상승에 따른 곡물류 경영비 변화	40

표 26	국내 쌀 수급 동향과 전망	41
표 27	목재 소비량 추세와 전망	44
표 28	환율 상승에 따른 목재 수입 전망	45
표 29	환율상승시 목재가공산업의 생산비 상승	45
표 30	주요 목제품의 가격 변화	46
표 31	품목별 총생산액, 경영비, 소득의 변화	50
표 32	소득 추정을 위한 1996~98 지표의 변동	51
표 33	농기계 부품 및 완제품 수입 실적, 1996	53
표 34	환율상승에 따른 농기계가격 인상률 추정	53
표 35	비료가격인상과 정부 재정정보조	56
표 36	1997년 대비 비료원가 상승률 추정	57
표 37	연평균 조달금리 수준의 변화	57
표 38	농약 소비 현황	59
표 39	환율 상승에 따른 농약 제조원가 인상효과	60
표 40	환율 상승에 따른 종자 수입업체의 추가부담	64
표 41	환율 상승에 따른 종자가격 상승	65
표 42	사료원료 사용 실적, 1996	67
표 43	환율 상승시 사료수입에 의한 추가부담액 추정	68
표 44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요인	69
표 45	환율 상승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율	72
표 46	농림산물 수출 현황, 1996	77
표 47	농산물 수입 현황, 1996	78
표 48	국가예산과 농림예산의 변화	82
표 49	농림정책자금 융자예산 현황, 1997	85
표 50	농가부채 추이	88
표 51	농가규모별 부채규모, 1996	89
표 52	차입처별 호당 농가부채	89
표 53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90
표 54	농가 호당 자산과 부채	91

빈

면

요약 및 정책제안

1. 농업지표 전망

- 1998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축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여 농업생산이 전년 대비 3.5~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998~2001년에는 농업성장률이 연평균 1.3~1.7% 감소하는 負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998년 농산물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전년 대비 -0.3~1.9% 변동할 것으로 전망됨. 1998~2001년에는 쌀, 노지채소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2001년에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어 농축산물 가격은 연평균 2.3~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998년 농업 총소득은 2.0% 정도 감소하고, 1998~2001년에는 3.5~5.6% 감소할 전망이다.
- 농림업취업자의 연평균 감소율은 1993~96년에 5.4%로 높았으나 1998년에는 전체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농림업취업자 감소는 1.0% 내외의 자연감소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농업취업자의 감소가 둔화됨에 따라 농업노임은 1998년에 0~3% 하락하고, 1998~2001년에는 연평균 0.7~0.8%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2. 부문별 파급영향과 대책

가. 시설원예부문

- 유류, 시설기자재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본재 투입이 많은 시설채소, 화훼, 시설과일의 경영비는 품목에 따라 30~60% 상승함.

- 시설채소 및 화훼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은 늘어날 것이나, 난방비 등의 증가로 수출원가가 상승하는 한편, 난방비 절약으로 인해 수출규격품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시설현대화 초기단계에 시설원예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상환 유예, 상환 금리 인상 억제 등 특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 농가에 대한 유류구입비, 난방시설의 교체, 저온재배 기술의 보급 등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용 면세유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다.
- 온실 신규설치 등 물적 확장보다는 기존시설의 열효율 개선 등 질적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절감방안과 시설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시설개선 희망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야 함.

나. 축산부문

- 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양돈과 양계의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비육우의 경우는 송아지 구입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산지가격이 경영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어 농가의 손실이 큼.
- 생산비 인상과 가격 하락에 따라 도축량이 증가하고, 전 축종의 사육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회전 주기가 긴 한육우는 공급능력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중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이 경영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와 축협은 축산농가에 사료구입비 등의 단기 경영비 용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볏짚 등 농산 부산물과 농산가공 부산물, 닭리작 사료, 사료작물 등의 조사료 생산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농가는 이에 따른 사양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정부가 한육우 수매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소값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 수매량을 확대하고 지육 수매를 병행해야 함.
- 돼지고기 수출에 필요한 규격돈 구매자금 확대 등 수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한우육, 닭고기의 대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품질 규격화 및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일본에 판매소 설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함.
- 축산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수급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의 흥수출하를 억제하고 사육두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축협은 직매장 소비자가격을 도매가격과 연동하도록 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육류 소매시장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소비자가격의 하방경직성 완화를 도모해야 함.

다. 곡물부문

- 비료, 농약, 유류, 영농비 금리 등의 인상에 따라 곡물의 경영비가 상승할 것이나 원예, 축산분야보다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쌀의 경영비 상승률은 5~10%에 달할 전망이다.
-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의 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농협 등은 자재의 적기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비료, 농약을 덜 쓰는 「환경보전형 농법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자재 투입량의 기준, 모니터링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1998년의 환율이 불안정할 것이므로 쌀, 보리 등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곡물의 선적시기와 환율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입대금 결제의 환차손 위험을 분산해야 함.
- 수입곡물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 곡물의 증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맥류 이모작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맥류 수확후 관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맥류재배를 유인하도록 함.
- 콩 파종 및 수확용 부착기 등을 개발하고, 생산단지에 대한 기계구입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함. 콩 수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콩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가수매제로 전환하고 전량수매하며, 농협 수매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확대를 검토해야 함.

라. 임업부문

- 경기침체와 목재 수입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요감소로 목재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임업 및 목재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국산 목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벌채 한도량과 간벌 허용량 확대가 필요함. 국유림은 정부의 의지로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므로 영림계획을 변경하여 벌채량과 간벌량을 확대하고 자원조사나 벌채계약 등 벌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제지와 보드류 등 내수시장 공급중심이면서 생산규모가 과잉인 품목과 국산재로 가공된 각재와 집성재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표고버섯, 밤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설비 설치, 저장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함.

마. 품목별 영향

- 43개 주요 농축산물의 1998년도 총생산액(명목가격 기준)은 1996년보다 1.0% 증가한 26조 2,365억원으로 추정됨. 품목류별로 보면 식량작물 생산액은 11.4% 증가, 채소류는 6.4% 감소, 화훼류는 23.0% 감소, 과수는 21.5% 감소, 축산은 3.2% 증가할 전망이다.
- 이들 품목의 1998년도 경영비 총액은 1996년보다 18.3% 증가한 11조 8,382억원으로 추정됨. 품목류별로 보면 식량작물 경영비는 16.1%, 채소류는 16.1%, 화훼류는 22.1%, 과수는 21.5%, 축산은 20.4% 증가할 전망이다.
- 이와 같이 총생산액은 다소 증가하나 경영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1998년도 소득 총액은 1996년보다 약 10% 감소한 14조 4천억원으로 추정됨. 품목류별로 보면 식량작물 소득은 9.7% 증가하지만, 채소류는 15.7%, 화훼류는 84.6%, 과수는 34.7%, 축산은 37.8% 감소할 전망이다.
- 경영비 상승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품목에 대해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대책이 요구됨. 특히 자본집약적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UR 농업협정문이 허용하고 있는 「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3. 농업관련산업 파급영향과 대책

가. 농업자재산업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자재산업은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상승 부담이 농기계 24~35%, 비료 32~65%, 농약 36~60%, 사료 45~55%, 종자 40~46%에 달함.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재산업의 손실액은 1조 5천억~2조 5천억원으로 추정됨.
- 자재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자재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금리인상으로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함.
- 은행권의 연지급 신용장개설 기피로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은행권의 신용장개설 촉구 등 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환율 상승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지가 필요하며, 원자재에 대한 저율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 영세업체의 인수·합병, 업종전문화 유도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농기계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기호성 저가 사료원료의 개발 등 수입대체가 가능한 국내 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나. 유통부문

- 환율 상승에 따라 유가, 자재가격, 교통세 등이 상승함으로써 포장비, 운송비, 저장비 등 물류비가 상승함에 따라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지불가격 상승과 농가수취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 경기 침체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유통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고 소매업체 등 유통관련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됨으로써 중도매인, 도매법인, 생산자조직, 수집상, 벤더(납품업자) 등의 미수금이 증가하고 대금결제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주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육성하여 모든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통한 통명거래, 주문발주체제와 소비자 구매단위의 완제품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함.
- 농·축협 등 생산자조직의 판매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하고,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화, 계열화를 통한 소비지시장에서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유통 부가가치를 획득하도록 함.
- 소비지에 회원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결성을 촉진하고, 직판사업 및 물류센터사업을 지원함.
- 공영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 집배송시설, 전산경매시스템 도입, 공동정산기구 설치 등 유통현대화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다. 수출입 부문

- 농산물 수출업체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낮은 품목(과실류, 인삼, 밤, 김치, 기타 전통식품 등)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시설채소와 화훼류 등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호 농산물(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주류, 커피, 과자류 등)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는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곡물류, 육류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 수입대금 지급 기간이 단축되고 수출대금 회수 기간이 지연되는 등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용 농산물 수매계약 이행 촉진을 위해 「수출자조금제도(가칭)」를 도입하고 이용이 부진한 「가격상승위험보험」의 보험요율과 보상한도의 조정이 필요함.
- 환율 변동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농산물 수출업체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관련 기금을 이용하여 수출용 농산물 수매자금, 시설자금, 유통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거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율변동보험」을 추가하여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 수출단지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 신규 수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단지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난방비, 생산 기술, 수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에 국내외 수요 기반이 튼튼한 농산물 위주로 추진해야 함.

4. 농업재정금융의 파급영향과 대책

가. 농업재정

- IMF 관리체제에 따른 세출 감축에 따라 1998년 농림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축된 7조 6,856억원이 됨. 재정 투융자의 축소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지연되고 농업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 장기 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기하되, 단기적으로 농가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경영자금, 운영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증액하도록 함.
-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이나 개별 경영체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사업에 대해 정부 투자를 축소해야 할 것임.
- 축소된 재정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업경영자금 등 일부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상제를 확대하도록 함.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일정 비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이 조달한 정책자금에 대해서 정부는 이차보상하도록 함.

나. 농업금융

- 농·축협 중앙회의 은행금융과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이 고금리 체계로 바뀌었으며 조달금리의 인상으로 정책금융의 금리가 인상됨.
- 현행 농림사업의 지원조건은 IMF 관리체제 이전의 여건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개별경영체 관련사업의 지원조건을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함.
- 농업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함.

- 농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조합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적자 조합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도록 함.

다. 농가부채

-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긴축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단위조합 상호금융의 이자율도 이미 3~5% 포인트 인상되었음.
- 농·축협이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농가는 경영비 조달과 차입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금융권의 강제상환조치도 예상됨.
-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정책금융의 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야 함.
- 농가의 상호금융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차입금 중 일부를 정책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해야 함.
- 정부지원을 받아 시설투자를 한 농가가 적자경영에 따른 시설 매각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농업고정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I . IMF 관리체제의 배경과 영향

1. 배경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누증 속에서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가 발생한 것이 금융·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임.
 - 경상수지 누적 적자 : ('94) 45억달러 ⇨ ('95) 89억 ⇨ ('96) 237억
 -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부통계에 대한 불신문제가 제기되어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서 이탈함.
 - 1997년 10월말 외환보유고는 305억불이었으나, 총외채는 1,200억불 수준이고 1997년말까지 상환해야 할 외채가 200억불로 추산되는 등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여 금융·외환위기를 촉발함.
 -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
- IMF 구제금융 신청
 - 1997. 11. 1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됨.
 - 11. 20일 환율이 거래제한폭까지 상승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면서 금융공황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
 - 11.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함.
- IMF 구제금융의 의미
 - IMF는 구제금융 제공시 국가의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경제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신청국은 이를 따르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을 경제주권의 IMF 위임 또는 경제의 IMF 신탁통치라고도 함.

- 구제금융의 대가로 국민경제 전부를 담보하고, 우리 경제구조를 타율에 의하여 개혁하고 개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음.

표 1 IMF 구제금융의 예상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국가 신용도 회복	○ 국가 이미지 추락
○ 금융·외환시장의 구조조정	○ 실업 증가와 국민생활의 질 저하
○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정책의 자율성 위축

2. IMF와의 합의 내용과 파급효과

- 정부와 IMF는 1998년 경제운용 지표를 1997. 12. 3일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이행상황을 반영하여 1998. 1. 9일과 2. 17일에 두차례에 걸쳐 수정하였음.
- 거시 경제지표 중 GDP 성장률은 당초 3% 수준에서 1%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이내에서 1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
-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본원통화 증가율을 15%대, 총유동성 증가율을 13%대에서 긴축 운영하며, 환율은 당초 1,100원/달러에서 1,400원/달러로 유지하기로 하고,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로 함.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미달하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외국 금융기관 진출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재정에 있어서는 재정지출을 긴축하고, 세수는 증대하기로 함. 자본시장 자유화, 무역 자유화,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함.

표 2 정부와 IMF간의 1998년 경제운영지표 합의사항

경제지표	1997. 12. 3. 합의	1998. 1. 9. 수정	1998. 2. 17. 재수정
GDP 성장률	3% 수준	1~2%	1%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5% 이내	9%	9%대 (10% 미만)
본원통화 증가율 (1분기)	-	14.9%	15.2%
총유동성 증가율	9%	13.2%	13.5%
금리	콜금리 25% 유지	금리안정 토대 마련	외환시장 안정되면 금리 인하
경상수지	43억달러 적자	30억달러 흑자	80억달러 이상 흑자
재정적자	균형 또는 소폭 흑자	적자 불가피	GDP의 0.8% (3조 6천억원)
가용 외환보유고 (1분기)	-	240억달러	200억달러
연평균 환율	1,100원/달러	1,300원/달러	1,400원/달러
실업률 (실업자수) ¹	3.9% (85만명)	5% 이상 (100만명 이상)	6~7%대 (120~150만명)

주 : 1) 실업률은 합의내용이 아님.

-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정적 효과도 많음.
 - 고금리 수준 : 투자 위축, 소비 위축
 -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 금융산업 지배 ⇨ 산업지배
 - 주식시장의 완전 개방 :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 속에서 외국 자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싼 가격에 인수 가능
 - 채권시장 개방 :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용이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커짐.
- 합의 내용중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자 손실은 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간단한 언급 밖에 없음.

- 그러나 재정긴축으로 인한 농업예산의 감축, 통화긴축에 따른 이자율 상승,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각종 농업용 원자재 수입비용의 증가 등으로 농업자재산업과 농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농업지표 변화전망

가. 농업성장률 및 농산물 가격 전망

- IMF 관리체제 하에서 1998년 농업생산은 전년에 비해 3.5~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환율 상승과 경기침체로 축산물, 시설채소 등의 수요와 생산이 감소하고, 엘니뇨에 의해 쌀 단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배업 성장률은 -3.4~-3.6%, 축산업 성장률은 -5.1~-7.9%에 이를 전망이다.
- 1998~2001년에는 농업성장률이 -1.3~-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중 재배업 성장률은 -0.9~-1.3%, 축산업 성장률은 -5.7~-8.5%로 전망됨.

표 3 농업성장률 전망

단위 : %

	1993~96	1997~98	1998~2001
농업전체	3.3	-3.5~-3.9	-1.3~-1.7
재배업	3.2	-3.4~-3.6	-0.9~-1.3
축산업	3.9	-5.1~-7.9	-5.7~-8.5

주 : 1998년의 경우 환율 1,200~1,400원/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7~9%, 경제성장률 -2.0~2.0% 가정, 2001년의 경우 환율 1,100~1,200원/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5~7%, 경제성장률 2.0~3.0%를 가정.

- 1998년 농축산물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전년 대비 -0.3~1.9% 변동할 것으로 전망됨. 축산물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크지만, 도축이 증가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경종작물의 가격은 쌀과 노지채소의 수요가 증가하여 -0.5~2.4%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됨.
- 1998~2001년에는 쌀, 노지채소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2001년에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어 농축산물 가격은 연평균 -2.3~-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농축산물 실질가격 변동 전망

단위 : %

	1993~96	1997~98	1998~2001
농 산 물 전 체	2.3	-0.3~1.9	-2.3~-3.9
경 종 작 물	3.4	-0.5~2.4	-1.6~ 0.4
축 산 물	-0.8	0.2~0.3	-11.4~-11.5

- 1998년에 농업부가가치는 3.5~3.9% 감소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0.3~1.9% 변동하므로 농업총소득은 전년 대비 2.0%(명목가격으로는 9~11%) 정도 감소하고, 1998~2001년에는 연평균 3.5~5.6% 감소할 전망이다.

나. 농림업취업자 및 농경지면적 전망

- 농림업취업자의 연평균 감소율은 1993~96년에는 5.4%로 높았으나, 1998년에는 실업이 크게 증가하여 이농이 줄어들고 귀농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림업취업자의 감소는 자연감소율 수준인 1.0%에 머물 전망이다.

- 1998년에 농림업취업자 감소가 둔화되어 농업노임은 전년 대비 0~3% 하락하고, 1998~2001년에는 0.7~0.8%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 1990년 초반 이후 농경지 전용면적은 연간 2만 6천ha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비농업부문의 성장감퇴, 재정·금융 긴축으로 인한 공공용지, 주택용지에 대한 수요 정체로 전용면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농업취업자 감소속도가 둔화되면서 농지의 휴폐경 면적도 안정되어 1998년 경지이용면적은 210만ha, 1998~2001년 기간에는 200만ha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농림업취업자 및 농경지면적 변화

	단위	1993	1997	1998	2001	연평균 변화율(%)		
						1993~96	1997~98	1998~2001
농림업 취업자	천명	2,828	2,162	2,136~ 2,156	2,084~ 2,147	-5.4	-0.3~-1.2	-0.2~-1.2
농업노임	지수	132.3	145.0	140.9~ 145.1	144.3~ 148.5	1.5	-2.8~ 0.1	0.7~ 0.8
농경지면적	천ha	2,055	1,924	1,910~ 1,919	1,834~ 1,843	-1.8	-0.3~-0.7	-1.3~-1.4
농경지 이용면적	천ha	2,285	2,110	2,100~ 2,119	2,031~ 2,056	-2.2	-0.5~ 0.4	-1.0~-1.1

주 : 농업노임은 1990년 기준 실질가격지수임.

4. 농업인 여론

-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에 관한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70명을 대상으로 1998. 1. 21~1. 23일 사이에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IMF 관리체제 이후 농가의 피해정도에 대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2.4%로 나타났으며, 29.4%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답해 91.8%의 응답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6 IMF 관리체제하 농가의 피해 인지도

	응답자(명)	비율(%)
큰 피해를 받고 있음	106	62.4
피해를 받고 있음	50	29.4
별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음	13	7.6
전혀 피해가 없음	1	0.6
잘 모르겠음	0	0.0
계	170	100.0

- 작목별로 보면, 벼 농가는 농한기인 관계로 축산, 시설원예 농가에 비해 '큰 피해'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84.7%의 응답자들은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축산, 시설원예, 과수 농가의 100%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7 작목별 피해 정도

	단위 : 명					
	벼	과수	축산	시설원예	밭작물	계
큰 피해	38	8	30	25	5	106
약간 피해	34	1	3	5	7	50
별 피해 없음	12	0	0	0	1	13
전혀 피해 없음	1	0	0	0	0	1
잘 모르겠음	0	0	0	0	0	0
계	85	9	33	30	13	170

- 어떤 부분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49.4%가 '유류·농약·비닐 등 영농자재값 상승'이라고 지적했고, 27.1%의 응답자는 '사료값 상승'이라고 답했으며 그 외에 '농축산물 판매가격 하락(9.4%)', '생필품값 인상으로 인한 가계비 지출 증가(2.9%)', '농산물 판매애로(2.4%)', '운영자금조달, 부채상환 부담' 순으로 나타남.

표 8 IMF 관리체제 이후 피해 내용

	응답자(명)	비율(%)
유류·농약·비닐 등 영농자재값 상승	84	49.4
사료값 상승	46	27.1
부채 이자 및 상환 부담	1	0.6
운영자금의 조달	2	1.2
농축산물 판매가격 하락	16	9.4
생필품값 인상으로 가계비 지출 증가	5	2.9
농산물 판매 애로	4	2.4
기타	12	7.0
계	170	100.0

- 작목별 피해 부문을 살펴보면, 벼는 '영농자재값 인상', 과수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영농자재값 상승', 축산은 '사료값 상승', 시설채소 및 화훼는 '영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조사됨.

표 9 IMF 관리체제하 작목별 피해요인

단위 : 명

	벼	과수	축산	시설원예	발작물	계
영농자재값 상승	52	4	1	21	6	84
사료값 상승	14	0	32	0	0	46
부채상환 부담	1	0	0	0	0	1
운영자금 조달	1	0	0	1	0	2
판매가격 하락	2	5	0	6	3	16
가계비지출 증가	4	0	0	1	0	5
농산물 판로 애로	0	0	0	1	3	4
기타	11	0	0	0	1	12
계	85	9	33	30	13	170

-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영농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0%가 '현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13.5%의 농업인들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12.9%의 농업인들은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응답자중 1명만이 '영농을 포기하겠다'고 답함.

표 10 장래의 영농의향

	응답자(명)	비율(%)
현상 유지	124	73.0
규모 축소	23	13.5
영농 포기	1	0.6
규모 확대	22	12.9
계	170	100.0

- 작목별 영농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벼 농가는 76.5%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12.9%는 '규모를 축소하겠다', 9.4%의 농가는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답함. 축산농가는 69.7%가 '현상 유지를 하

겠다'고 응답했으며, 27.3%의 농가는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3.0%의 농가만이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함. 시설채소 및 화훼 농가 역시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농가가 76.7%로 나타났으며, 16.7%의 농가가 '규모를 축소하겠다', 6.7%의 농가는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함.

표 11 IMF 관리체제하 품목별 영농의사

단위 : 명

	벼	과수	축산	시설원예	밭작물	계
현상 유지	65	6	23	23	7	124
규모 축소	11	2	1	5	4	23
영농 포기	1	0	0	0	0	1
규모 확대	8	1	9	2	2	22
계	85	9	33	30	13	170

- IMF 관리체제하에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에 관한 질문에 대해 60.0%의 농업인들이 '생산비용 절감대책 마련'이라고 답했으며, 17.1%의 농업인들은 '저비용 구조로의 시설개선'이라고 답했고, '적정한 영농규모 유지(7.6%)', '작목전환(7.1%)' 순으로 답했으며, 그 외에 농업기술개발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12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대응방안

	응답자(명)	비율(%)
적정한 영농규모 유지	13	7.6
생산비용 절감대책 마련	102	60.0
작목 전환	12	7.1
저비용 구조로 시설 개선	29	17.1
기타	14	8.2
계	170	100.0

- 새 정부가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생활 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유류 및 농자재값 안정(22.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13.5%)’, ‘농산물 가격안정(12.3%)’, ‘농가부채 및 경감(10.0%)’, ‘영농자금 지원확대(7.1%)’, ‘농가소득 보장(6.5%)’,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수행과 투자(5.9%)’, ‘사료값 안정(5.9%)’, ‘추곡수매가 인상(2.9%)’, ‘선거공약 성실이행(2.4)’, ‘농어촌복지(1.8%)’ 등으로 조사됨.

표 13 IMF 관리체제하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

	응답자(명)	비율(%)
유류 및 농자재값 안정	38	22.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3	13.5
농산물값 안정	21	12.3
농가부채 유예 및 경감	17	10.0
영농자금 지원확대	12	7.1
농가소득 보장	11	6.5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10	5.9
사료값 안정	10	5.9
추곡수매가 인상	5	2.9
선거공약 성실 이행	4	2.4
농어촌복지	3	1.8
직접지불제 보상금 상향 조정	2	1.1
영농후계인력 양성	1	0.6
농업관련 조직 축소방침 재고	1	0.6
유희농지 활용대책 수립	1	0.6
신속한 영농정보 제공	1	0.6
농촌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농정	1	0.6
지역특성 고려한 영농지원	1	0.6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사료 개발·보급	1	0.6
무응답	7	4.1
계	170	100.0

II. 농림업부문의 파급영향과 대책

1. 시설원예부문

가. 현황

-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소비의 연중화 및 고급화, 정부의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 즉, 1996년 시설면적은 총 47,407ha(전체 원예작물의 8.4%)로 1990년에 비해 채소 93.2%, 과수 238.6%, 화훼 90.0%가 증가함.
- 시설면적 중 겨울철 가온면적 비율은 고온이 필요한 화훼가 80%로 가장 높고, 채소 18.8%, 과수 47.5%임.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에 따라 가온면적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표 14 시설원예의 현황과 비중, 1996

단위 : ha

	총 재배면적 (A)	시설재배면적 (B)	가온면적 (C)	시설비율(%) (D=B/A)	가온 비율(%) (D/C)
채 소	389,000	42,669	8,007	11.0	18.8
과 수	173,000	1,464	695	0.8	47.5
화 훼	5,368	3,274	2,619	61.0	80.0
계	567,368	47,407	11,321	8.4	24.6

- 시설원예는 자본재 투입이 많고 광열·동력비 등 에너지 투입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 증가되고 있는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등은 투입요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비에 반영되는 비율이 큼.

표 15 시설원예 품목별 주요 중간재비의 비중, 1996

단위 : 천원/10a (%)

	경영비	중간재비			
		소계	광열비	영농시설 시설상각비	기 타
오이(축성)	5,182 (100.0)	4,737 (91.4)	1,633 (31.5)	714 (13.8)	2,390 (46.1)
시설포도	4,810 (100.0)	4,631 (96.3)	1,679 (34.9)	1,095 (22.8)	1,857 (38.6)
장미	8,777 (100.0)	7,660 (87.3)	2,455 (28.0)	1,178 (13.4)	4,027 (45.9)
쌀	229 (100.0)	116 (50.4)	2 (0.7)	1 (0.5)	113 (49.2)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농촌진흥청, 「'96 농축산물 표준소득」, 1997.

-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의 평당 설치단가가 유리온실 40만원, 경질판온실 25만원, 자동화비닐온실 9만 4천원으로 시설농가의 자금부담이 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시설설치 지원 단가에 15~20% 인상 요인이 발생함.
- 시설원예정책이 유리온실 등 고비용·고효율 생산시설의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재정투자 축소로 시설원예 관련 지원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지원물량 조정 등 부분적인 조정은 필요하나, 시설현대화는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나. 영향 및 전망

(1) 채소

- 환율 상승에 따른 비료, 유류, 농약, 시설기자재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달러당 환율이 1,600원일 경우 자본재 투입이 많은 시설채소의 경영비는 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표 16 환율 상승에 따른 시설채소 경영비 변화

단위 : 천원/10a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오 이	5,182	6,158(18.8)	6,651(28.3)	7,144(37.9)
토 마 토	3,840	4,465(16.3)	4,781(24.5)	5,097(32.7)

주 : 1) ()안은 1996년 대비 증가율임.

2) 오이, 토마토, 딸기는 축성기준, 수박은 반축성 기준임.

자료 : 농촌진흥청, 「'96 농축산물 표준소득」, 1997.

- 유가 상승으로 겨울철 난방 온실재배와 축성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이며, 무가온 재배면적과 가온기간이 짧은 반축성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시설채소 재배시기가 늦춰지게 됨으로써 늦봄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겨울철 시설재배가 줄어들어 1998년 초에는 품목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1998년 봄에는 무가온 재배 면적의 증가로 출하집중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소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상승에 따른 난방비 증가로 생산비가 상승하여 수출원가가 상승하는 한편, 농가에서 온실내 온도를 낮추는 등 난방비 절약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어 1998년초 수출 증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원화의 대일 환율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일본시장에서 네덜란드, 뉴질랜드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시장 여건은 양호해질 것임.

(2) 과수

- 경영비에서 광열비 비중이 높은 시설포도와 시설감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달러당 환율이 1,600원일 경우 시설포도와 시설감귤의 경영비는 각각 41%와 5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온을 중단하거나 가온 일수를 단축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연탄, 땀나무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시설포도의 경우 12월과 1월 가온재배 농가수가 전년의 10~15% 수준으로 감소함.

표 17 환율 상승에 따른 시설과수 경영비 변화

단위 : 천원/10a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시설포도	4,810	5,799(20.6)	6,300(31.0)	6,800(41.4)
시설감귤	7,126	9,097(27.7)	10,094(41.7)	11,091(55.6)

주 : ()안은 1996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농촌진흥청, 「'96 농축산물 표준소득」, 1997.

- 시설포도와 시설감귤은 가격이 비싸 경기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요 감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이 40~5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가온재배 면적감소로 시설과실 조기출하기인 4~6월경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무가온 시설재배 또는 노지재배 과실 출하기에는 집중출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

(3) 화훼

- 환율 상승으로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가온재배에서 경영비 상승폭이 크며, 특히 유리온실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목인 장미·백합의 경영비 상승폭이 큼. 종묘의 해외 의존도가 큰 구근류, 특히 백합의 경우 종묘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이 크며, 종구의 자급이 현안 과제임.

표 18 환율 상승에 따른 화훼류 경영비 변화

단위 : 천원/10a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시설국화	3,450	3,738 (8.4)	3,884(12.6)	4,030(16.8)
카네이션	11,164	12,614(13.0)	13,348(19.6)	14,082(26.1)
장미	8,777	10,340(17.8)	11,131(26.8)	11,921(35.8)
백합	9,297	11,219(20.7)	13,640(46.7)	14,941(60.7)

주 : ()안은 1996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농촌진흥청, 「'96 농축산물 표준소득」, 1997.

-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 집중 또는 생산 공백이 생기는 등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안개초, 백합 등 저온에 강한 일부 품목의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이나 가온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저온재배되는 장미의 경우 품질이 저하되어 수출 규격품 확보가 어려워지며, 휴면이 늘어날 경우 4월 이후 생산이 집중되어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큼.
-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충난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난방시설을 갈탄 보일러나 연탄 난로 등으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 소규모 비닐온실 절화농가는 갈탄 보일러로, 관엽류 재배농가는 연탄 난로로 대체하고 있음.
 - 보조 난방시설을 사용할 경우 난방비는 절감되나, 가스로 인한 생육 장애가 발생하며, 추가 설치 비용이 소요됨(1,000평당 약 1,200만원).
 - 유리온실과 같은 첨단시설은 난방시설을 대체하면 자동화 시설 운영이 어려워 온실 온도를 적정 온도보다 낮춘 저온재배가 증가함.
- 화훼농가는 가격 하락, 소비 위축, 유류가격 상승으로 생산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화훼소비 억제 정책, 마스크의 화훼가 사치품이라는 보도에 대해 반발이 심함.
- 경기침체와 실질소득 감소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동양란, 수입절화, 장미 등 고급화훼의 소비는 평년보다 40~50%까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동양란 등 고급 화훼류와 화환에 사용되는 품목의 가격 하락이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됨.
 - 화훼 가격은 4~5월경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의 감퇴로 농가소득 보전은 어려울 것임.
- 환율 상승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장미·백합·선인장·양난 등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나,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겨울철 저온재배 증가로 고품질 규격품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수출 대상국도 일본 일변도에서 캐나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로 다변화되고, 절화류의 소품 분화류의 수출 상담도 증가하고 있음.
 - 캐나다, 미국 등 원거리 지역 수출은 항공료가 높아 수출 경쟁력이 낮은 편임.

- 구근류는 수입종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묘목류(동양란, 열대관엽)와 고급 절화류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19 환율 상승에 따른 장미의 수출 경쟁력

단위 : 원/본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 수출원가(A)	757	711	711	711
- 물 품 대	459	413	413	413
- 국내경비	151	151	151	151
- 현지경비	147	147	147	147
○ 원화 환산 수출가격(B)	530	753	878	1,003
○ 수출손익(B-A)	-227	42	167	292

다. 대책

(1) 원예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금융 확대

- IMF 사태로 인해 생산비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으로 시설화·현대화 초기단계인 시설원예산업 기반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산유통지원사업 수혜농가는 물론 기존 시설 보유 농가의 존립을 위해 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상환 유예 등 특별 금융대책이 필요함.
- 시설자금 수혜농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민 위주로 경영·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교육 이수 농가 및 수출 지향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에너지 절감대책 수립 및 농업용 면세유 지속적 공급

- 시설 현대화는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유리온실과 같은 고비용 시설보다 저비용·고효율 시설의 보급이 바람직함.
- 고비용 시설은 수출품목 위주로, 일반 시설은 내수품목 위주로 생산기반의 분화가 필요함.
- 시설의 신규설치 등 물적 확장보다는 기존시설의 자동화, 열효율 개선 등 질적 확충이 필요함.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 농가에 대한 유류구입비, 난방시설의 교체, 저온재배 기술의 보급 등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용 면세유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
 - 유류 절감을 위한 대체시설(갈탄 보일러, 나무 보일러, 연탄 난로, 폐자재 보일러 등)과 에너지 절감 방안을 농가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규격, 효과, 문제점 규명이 미진한 상태임.
 - 에너지 절감방안과 시설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시설개선 희망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야 함.

(3) 수출 촉진

- 고품질 수출규격품의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단지를 규모화·조직화하고, 수출촉진자금의 한도 인상 및 수출업자간 과당경쟁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화훼의 수출 증가로 1998년 화훼판매촉진사업비 중 수출보조금(상자당 7,400원) 4억 7천만원을 약 9억원(수출 물량 100% 증가 전망)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시설작물의 내수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내실 있는 수출촉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과일, 채소의 일본 도매시장 상장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함.
 - 화훼의 원거리 수출을 위한 항공료 지원 방안(항공사와 저가 장기계약)을 수립해야 함.
 - 수출 관련업무 수행기관(농협무역,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자체 무역회사)의 역할 재정립과 유기적 협조 강화가 필요함.

(4) 화훼 소비 촉진

- 화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확대와 내수 촉진이 필요하며, 특히 꽃이 사치품 내지 과소비라는 정부 방침은 소비자가 민감히 반응하므로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중 화환·화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함.

2. 축산부문

가. 현황

- 육류 소비량은 1990년 86만톤에서 1997년 138만톤으로 연평균 7.1% 증가해 왔음. 1997년 육류 소비량 중 쇠고기 36만 2천톤, 돼지고기 73만톤, 닭고기는 29만 3천톤을 점유함.
- 1997년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은 90% 이상인 반면, 쇠고기의 경우 54%임. 정부는 2001년의 자급목표를 쇠고기 30%,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축산농가 호당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업농이 증가함.
 - (1980~97년) 한육우: 1.4 ⇨ 5.9두, 젖소: 9.4 ⇨ 30.6두, 돼지: 3.5 ⇨ 263두, 닭: 58 ⇨ 545마리
- 비육돈, 육계, 계란의 경영비 중에서 사료비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 경영비에 반영되는 비율이 큼.

표 20 전업규모 축산농가수, 1992~97

단위 : 호

	1992	1995	1997
한우(50두 이상)	1,190	2,458	4,053
돼지(1천두 이상)	527	1,113	1,663
닭(3만수 이상)	32	663	846
젖소(50두 이상)	717	1,325	2,331

표 21 축종별 경영비와 사료비 비중, 1996

	단위	경영비(A)	사료비(B)	사료비 비중 (B/A, %)
비육우	천원/500kg	2,461	631	25.6
비육돈	천원/100kg	126	78	61.9
육계	원/kg	968	627	64.8
계란	원/10개	573	386	67.4
우유	원/kg	345	186	53.9

나. 영향 및 전망

- 환율 상승으로 1997. 12월에 2차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이 40.4% 인상되었음. 또한 종래에는 사료상이 2~3개월 결제 조건으로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이전의 외상 청산은 물론이고 사료대금 선납을 요구하고 있어, 축산농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료 외상거래시 연 이자율은 19.8%(지역 축협)로서, 사료대금을 선납할 경우 사료 구입단가는 낮아짐.

표 22 사료가격 인상률

	인상전 (1997. 12. 9)	1차 인상 (1997. 12. 10)	2차 인상 (1997. 12. 22)
인상률(%)	-	10.0	27.6
육성돈 사료가격(원/kg)	274 (100.0)	301.4 (110.0)	384.6 (140.4)

주 : () 안은 인상전 대비 지수임.

-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양돈 경영비는 1996년 대비 38.1%(환율 1,600원 가정), 양계의 경우 45.6% 상승할 전망이다.
- 비육우의 경우 송아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산지가격이 경영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어 농가의 손실이 큼.

표 23 환율 상승에 따른 축종별 경영비 변화 전망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비육우(천원/500kg·두)	2,461	2,220 (-9.8)	2,356 (-4.3)	2,485 (1.0)
비육돈(천원/100kg·두)	126	141 (15.9)	157 (24.6)	174 (38.1)
육계(원/생체kg)	968	1,139 (17.7)	1,277 (31.9)	1,409 (45.6)
계란(원/10개)	573	715 (24.8)	797 (39.1)	875 (52.7)
우유(원/kg)	345	388 (12.5)	427 (23.8)	466 (35.1)

주 : 1) 가축비는 1998년 1월 가격을 적용함.

2) ()안은 1996년 대비 경영비 상승률임.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1997.

(1) 한육우

- IMF 관리체제 직전의 한우 산지가격은 240만원(숫소 500kg)이었으나, 경영비 인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215만원(1998. 2. 13일)으로 하락함으로써 비육우 농가들이 적자경영 상태에 있음.
- 1998년 상반기에는 출하량 증가에 따라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998년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상승으로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한우육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나, 사육두수 감소 후에는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양돈

- 산지 성돈가격은 14만원 이하까지 하락하다가 1998년 1월 이후 회복세를 보여 2월 13일 현재 20만원 수준임.
-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유리해져 1998년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7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2만톤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 국내 생산량과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수출이 증가하여 1998년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66~68만톤이 될 전망이다.
-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양돈농가들이 사육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국내산 및 수입 돼지고기 공급이 모두 줄어들고, 1998년 산지 성돈가격은 20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3) 양계

- 육계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고 계란 가격은 1998년초까지 상승하였으나, 2월 이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육계 : ('97. 11) 969 ⇨ ('97. 12) 1,097 ⇨ ('98. 2. 13) 1,300원/생체kg
 - 계란 : ('97. 11) 796 ⇨ ('98. 1) 1,063 ⇨ ('98. 2. 13) 856원/대란10개

- 산지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지만 경영비는 보상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부업농가의 경우 사육규모를 현상 유지 내지 확대하고 있으나, 중규모 이상의 계열화 농장들은 계열화업체의 경영난으로 대금결제가 지연됨에 따라 사료 구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육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 1998년의 양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한 7,400~7,500만수가 될 전망이다.
- 사육 마리수의 감소 및 타 육류의 닭고기 대체수요의 확대로 닭고기 소비량은 1997년보다 약간 증가한 29~32만톤 정도가 되고,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 수요 확대 및 국내 생산 감소에 따라 수입은 1997년의 1만 6천톤보다 늘어난 2만 2천~4만 6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1997년 300톤보다 늘어난 1,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상승으로 난가공품 수입이 감소되어 국내산 계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계란 가격은 10개당 1,000원대에서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4) 낙농

- 1998년 1월부터 원유가격이 18.4% 인상되었으며, 유제품 가격도 20% 정도 인상됨.
- 사료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1997년 이후 하락세에 있던 젖소 가격이 더욱 하락함.
 - 초임 만삭 : ('97. 1) 201 ⇨ ('97. 12) 180 ⇨ ('98. 2. 10) 157만원/두
 - 암 송아지 : ('97. 1) 31 ⇨ ('97. 12) 22 ⇨ ('98. 2. 10) 13만원/두

- 1997년부터 원유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저능력우가 이미 도태되었기 때문에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54만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우유 소비는 1997년 대비 3.7% 감소한 234만톤이 될 것이며, 시유 소비는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환율 상승으로 수입 유제품 가격이 상승되었으나 국내산 유제품 가격도 20% 상승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은 1997년 수준인 38만톤에 머무를 전망이다.

다. 대책

(1) 사료구입비 등 경영자금 용자 및 수매 확대

- 정부와 축협은 축산농가에 단기적 사료구입비 용자를 확대하여 축산농가들의 사료대금 선납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양계 계열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용자를 확대함.
- 일부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진료비 및 인공수정료 인하, 자가수정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도록 함.
- 정부가 수매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소값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 수매량을 확대하고 지육 수매를 병행하도록 함.

(2)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 한육우나 젖소 사육농가는 배합사료 이용을 줄이고 볏짚 등 농산 부산물과 농산가공 부산물, 담리작 사료, 사료작물 등의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사양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부존자원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혼합사료(TMR)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 종자의 적기 공급 등 조사료 생산대책을 강화해야 함.
- 현행 유지율 위주의 원유가격 결정체제로 인하여 조사료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유지방 이외에 무지고형분을 원유가격 결정 요소에 추가하는 원유 성분별 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료 이용 촉진을 유도함.

(3) 수출 확대

- 돼지고기 수출은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출에 필요한 규격돈 구매자금 확대 등 수출 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함.
- 한우육, 닭고기의 대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품질 규격화 및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일본에 판매소 설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함.

(4) 관측 및 판촉 강화

- 축산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수급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의 흥수출하를 억제하고 사육두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축협은 직매장 소비자가격을 도매가격과 연동하도록 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육류 소매시장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소비자가격의 하방경직성 완화를 도모함.

3. 곡물부문

가. 현황

- 국내 곡물 생산량은 1990년에 700만톤에서 1997년에는 600만톤으로 연평균 2.2% 감소하여 왔음. 1997년 품목별 생산량은 쌀이 532만톤으로 88%를 차지하며 보리 22만톤, 콩 16만톤, 옥수수 7만톤, 밀 1만톤 등으로 구성됨.
- 국내 곡물 총소비량은 1990년에 1,628만톤에서 1997년에는 2,073만톤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였음. 용도별로는 식용이 630만톤에서 609만톤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공용은 329만톤에서 386만톤, 사료용은 630만톤에서 1,038만톤으로 증가하였음.
- 곡물 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1996년 26.7%로 하락하였으나 1997년에는 쌀의 풍작에 따라 29.1%로 상승하였음.
 - 1997년 쌀의 풍작으로 1998년 쌀 자급률은 1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IMF 사태로 우려될 수 있었던 쌀 매점매석이나 가격양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쌀 이외의 곡물 자급률은 1990년에 10.3%에서 1997년에는 4.5%로 하락함. 환율 상승에 따라 보리, 밀, 콩 등의 국지경쟁력이 제고되었으므로, 국내 생산을 늘려 외환 수요를 줄이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곡물 수입량은 1990년에 1,007만톤(16억달러)에서 1996년에는 1,462만톤(30억달러)으로 증가함.

나. 영향 및 전망

(1) 전체 곡물

- 1998년 곡물 총소비량은 사료용 소비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40만 톤이 줄어든 1,933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상승으로 수입곡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제조업체들의 국내산 곡물 수요가 증대되고, 1998년 국내산 곡물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만톤이 늘어난 619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4 곡물 수급 추세 및 1998년 전망

	단위	1990	1996	1997	1998
소비량	만톤	1,628	2,060	2,073	1,933
생산량	만톤	701	550	603	619
수입량	만톤	1,002	1,428	1,474	1,370
이월량	만톤	366	230	239	295
재고율	%	22.5	11.2	11.5	15.3
자급률	%	43.1	26.7	29.1	32.0

- 환율 상승으로 곡물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1998년 곡물 수입량은 1996년의 1,462만톤보다 100만톤 가량 줄어든 1,370만톤 내외일 것으로 전망됨.
- 1996년 30억달러에 달하던 곡물 수입액은 1998년에는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수입량 감소로 21억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지출액은 1996년 보다 4천억원 가량 늘어난 2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998년의 곡물 자급률은 밀, 옥수수 등의 곡물수입 감소에 따라 32%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비료, 농약, 유류 등 자재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라 곡물 경영비가 상승할 것이나 원예, 축산분야보다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므로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음. 1998년 쌀 10a당 경영비 상승폭은 1996년 대비 5~10%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표 25 환율 상승에 따른 곡물류 경영비 변화

단위 : 천원/10a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쌀	229	240 (5.0)	246 (7.5)	252(10.0)
보리	115	120 (4.4)	123 (6.7)	125 (8.9)
콩	105	116(11.0)	122(16.6)	128(22.2)
옥수수	142	154 (8.4)	160(12.6)	166(16.8)

주 : ()안은 1996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농촌진흥청, 「'96 농축산물 표준소득」, 1997.

(2) 쌀

- 1980년대 이후 계속 줄어들던 1인당 쌀소비량은 분식제품의 가격 상승 및 외식 감소에 따른 유류 대체 수요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인당 쌀소비량은 1997년 102.5kg에서 1998년에는 103~105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1998년의 쌀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방출량은 계획치인 82만톤보다 15만톤 많은 97만톤으로 늘려야 할 것이며, 1998 양곡년도말 재고량은 9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총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17%로서 적정 수준이 될 것임.

- 쌀 소비가 증가하고 농지경합작물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1998년의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4천ha 증가된 105만 6천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6 국내 쌀 수급 동향과 전망

	단 위	1990 ¹	1996	1997 (추정)	1998 (전망)
생산량	천 톤	5,898	4,695	5,323	5,450
수입량	천 톤	0	115	0	167
소비량	천 톤	5,445	5,245	5,079	5,194
이월량	천 톤	2,025	244	488	905
연말 재고율	%	37.2	4.7	9.6	17.4
자급률	%	108.3	89.5	104.8	104.9

주 : 1) 양곡년도를 나타냄.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1990~97년).

- 경영비 상승과 쌀소비 증대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충분한 재고가 있으므로 매점매석, 가격안등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미곡종합처리장 등 연관산업체의 전기료와 과세가 인상되는 등 유통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은 1997년 대비 7% 가량 상승한 42,000원/20kg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분야의 재정이 축소될 경우 약정수매 선도금 지급,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등에 필요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다. 대책

(1) 농자재 확보 및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적극 검토

-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의 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농협 등은 자재의 적기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비료, 농약을 덜 쓰는 「환경보전형 농법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자재 투입량의 기준, 모니터링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하도록 함.

(2) 보리, 콩 등 국내 곡물 증산체제 강화

- 맥류 이모작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맥류 수확후 관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맥류재배를 유인해야 함.
- 콩 파종 및 수확용 부착기 등을 개발하고, 생산단지에 대한 기계구입 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콩 수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콩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가수매제로 전환하고 전량 수매하며, 농협 수매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함.

(3) 곡물 수입의 효율화

- 1998년의 환율이 불안정할 것이므로, 쌀, 보리 등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곡물의 선적시기와 환율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입대금 결제의 환차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함.
- 외환 부족과 은행의 신용장 개설 기피상황에 대응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농산물 신용공여자금을 이용하고, 외국계 은행들에 대하여 곡물 수입에 대한 신용장 개설 협조를 구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재보증을 하여 단기적 곡물수입을 안정시키도록 함.
- 국영무역이나 민간의 곡물수입방식을 일괄입찰방식(flat buying)에서 국제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극 유도함.

(4) 미곡 유통 및 수매제도 운영 개선

- 물가관리를 위한 정부보유미의 대량 방출을 지양하고 연간 공매 기본 계획을 연초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도록 함.
- 1997년산의 풍작에 따라 1998년 중 정부보유 미곡이 예년보다 적게 방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8년산에 대한 수매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고, 특히 약정수매 선도금 지급에 필요한 수매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약정수매 선금 지급비율(1997년 40%)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1997년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사항인 용자수매제도를 1998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곡물거래소 설립과 공공비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4. 임업부문

가. 현황

- 1996년 목재 소비량은 2,740만 m^3 이었으나 1997년에는 후반기의 건설경기 침체로 2,570만 m^3 로 감소하였음.
- 국내 목재 생산량은 1996년에 120만 m^3 으로서 자급률이 4.4%였으나 1997년에는 123만 m^3 이 공급되어 4.8%로 약간 증가하였음.
- 목재 수입량은 1996년 2,621만 m^3 에서 1997년 2,446만 m^3 으로 감소함.

표 27 목재 소비량 추세와 전망

단위 : 천 m^3

	1995	1996	1997	1998(전망)
제재용	7,191	4,601	8,169	6,526
합판·단판용	3,903	3,428	4,920	3,355
펄프·칩용	8,404	9,588	9,026	8,710
기타	5,827	9,787	3,580	5,814
합계	25,325	27,404	25,695	24,405
자급률 (%)	4.2	4.4	4.8	6.3

자료 :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나. 영향 및 전망

- 경기침체와 목재 수입가격의 상승에 따라 1998년 목재 수입량은 2,287만 m^3 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1998년의 목재수입액은 환율 1,200~1,600원/달러를 적용하면 1996년에 비해 6,800억~1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8 환율 상승에 따른 목재 수입 전망

	단 위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목재 수입량	백만m ³	26	23	23	23
목재 수입액	조원(억달러)	2.2(27.8)	2.9(24.3)	3.4(24.3)	3.9(24.3)

- 경기침체와 고금리, 환율 상승에 의한 생산비용의 증가, 목제품의 수요 감소로 임업 및 목재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임업은 노력비가 주된 경영비이므로 환율과 물가상승에 의한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전 산업에 걸친 경기침체로 산주들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었고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고금리로 인해 투자는 감소할 것임.
 - 목재 가공업은 목재 가공품의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 대부분의 목재 가공산업이 과잉상태이므로 새로운 투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29 환율상승시 목재가공산업의 생산비 상승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합판	100	132	149	165
보드류(MDF)	100	129	144	158
제재목	100	144	167	189
펄프(화학펄프)	100	141	161	182

주 : 1996년을 100으로 한 지수.

- 목재 수입의 감소와 국산 목재의 공급 부족으로 원자재 부족이 심화될 것임.

- 제재산업은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제재목의 수요 감소로 생산설비의 70% 정도가 도산되거나 조업단축 상태에 있음. 더구나 대부분의 제재공장이 영세하므로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 제재목의 수요 감소가 지속된다면 일부 특수 목재 가공공장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도산할 것으로 보임.
- 제재 및 합판폐목재와 국산 목재를 원자재로 이용하는 보드류 산업도 제재산업과 합판산업의 가동률 감소로 인한 폐재 부족과 국산 목재의 공급 정체로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짐.
- 목제품과 임산 부산물은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수입 대체와 수출 증가가 예상됨.
 - 1차 가공된 각재에서 건축자재까지 국산목재로 가공된 제품이 외국 목제품을 대체하고 있음.
 - 목재칩은 이미 중국산에 비해 국산이 저렴하고 원목도 수종에 따라 국산이 외재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있음.

표 30 주요 목제품의 가격 변화

			1996	1997. 6	1997.10	1997.11
원 목 (원/m ³)	국내산	소나무	101,722	106,750	106,000	106,000
		참나무류	83,221	89,500	89,000	89,000
		수 입 산	96,574	93,396	98,638	108,711
합 판 (원/매)	국 내 산		14,700	15,800	15,800	15,800
	수입산(인니산)		15,700	15,950	14,770	15,380

주 : 인도네시아는 환율 상승을 감안하여 97년 7월 이후 합판의 수출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음('97.6: 450달러/m³ → '97.10: 375달러/m³ → '97.11: 355달러/m³).

- 경기침체로 임산 부산물의 수요가 감소함.
 - 밤, 표고버섯 등 대부분의 임산부산물은 가격 및 소득탄력성이 크므로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다. 대책

(1) 국산 목재 공급 확대

- 1997~98년 영림계획을 수정하여 벌채 한도량과 간벌 허용량을 확대하
므로써 산주들이 벌채량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음. 그
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벌채와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
조금으로 작업비를 충당하므로 지원금의 증액, 특히 지방비의 보조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벌채량이 실제로 증가할 수 없음. 따라서 간벌사업
비, 조립비 등 벌채와 관련된 지원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국유림은 정부의 의지로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므로 영림계획을 변경하
여 벌채량과 간벌량을 확대하고 자원조사나 벌채계약 등 벌채와 관련
된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목재 벌채량을 늘려야 할 것임.

(2) 목재 유통개선 및 국산 목재 가공 확대

- 중소 목재가공업체에 대한 국산 목재 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997년 대
비 약 75% 증액한 75억원으로 하고 대출과정을 간소화하며, 대출조건
을 완화하여 국산 목재를 이용을 늘일 수 있도록 함.
- 가동중인 임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자동화시설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제2의 임산물유통센터를 강원도 지역에 설치하여 국산재 가공을 촉진
하도록 함.
- 국산 목재를 가공하는 목재 가공업체의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여 해당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국산 목재로 대체가 비교적 쉬운 각재와 목조주택의 자재 등을 가공하는 국산재 가공업체에게 생산설비 설치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및 가공기술을 지원하고 소비·이용업체의 가공 목제품 판로확보를 지원해야 함.
- 국내 목재로 가공된 목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기초 목제품에서 가구에 이르는 각종 국산재 목제품을 판매하는 물류센터를 수도권지역에 건립하도록 함.

(3) 목제품과 임산 부산물의 수출 증대

- 제지와 보드류 등 내수시장 공급중심이면서 생산규모가 과잉인 품목과 국산재로 가공된 각재와 집성재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표고버섯 등 수출경쟁력이 회복된 임산부산물은 수출 주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재배기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특히 영세생산농가가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과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수출대행단체에게 포장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필요함.
- 밤의 주수출국인 일본에서 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출대상국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간밤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피밤 상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저장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지화 적응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5. 품목별 영향

가. 추정 방법

- 총 43개 품목을 대상으로 1996년을 기준으로 한 1998년의 판매가격과 경영비의 변동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총수입, 총경영비, 총소득을 추정함. 단, 재배면적이나 사육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품목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 1996년도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
 - 판매가격, 경영비 비목의 변동을 : KREI 추정(표 32 참조)
- 자료와 분석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43개 대상 품목을 토대로 추정한 1996년도 총조수입액은 25조 9,597억 원으로서 농림통계에서 공표된 농산물생산액 25조 1,516억 원과 큰 차이가 없음.

나. 계측 결과

- 43개 품목의 1998년도 총생산액은 1996년보다 1.0% 증가한 26조 2,365 억 원으로 추정됨.
 - 품목별로 식량작물 생산액은 11.4% 증가, 채소류는 6.4% 감소, 화훼류는 23.0% 감소, 과수는 21.5% 감소, 축산은 3.2% 증가할 전망이다.
- 43개 품목의 1998년도 경영비 총액은 1996년보다 18.3% 증가한 11조 8,382억 원으로 추정됨.
 - 품목별 경영비 증가율은 식량작물의 경우 16.1%, 채소류 16.1%, 화훼류 22.1%, 과수 21.5%, 축산 20.4%로 전망됨.
- 이와 같이 총생산액은 다소 증가하나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1998년도 소득 총액은 1996년보다 9.8% 감소한 14조 3,982억 원으로 추정됨.

- 식량작물 소득은 9.7% 증가하지만, 채소류는 15.7%, 화훼류는 84.6%, 과수는 34.7%, 축산은 37.8% 감소할 전망이다.
- 주요 품목의 1996년 대비 1998년의 총소득 비율은 쌀 1.10, 보리 1.11, 감자 1.10, 옥수수 1.09, 시설과채류 0.6~0.7, 배추 1.08, 무 1.23, 고추 0.85, 마늘 1.02, 파 0.95, 양파 0.52, 시설화훼 0.15, 사과 0.75, 배 0.64, 복숭아 0.82, 포도 0.84, 감귤 0.28, 한우 0.42, 젓소 0.79, 돼지 0.56, 닭 0.86 등임.

표 31 품목별 총생산액, 경영비, 소득의 변화

단위 : 억원

	합계	식량작물	채소류	시설화훼	과수	축산
'96 총생산액(A)	259,693	100,934	62,943	6,894	24,708	64,214
총경영비(B)	100,050	25,868	18,431	3,981	6,478	45,292
총 소득(C)	159,644	75,066	44,512	2,913	18,230	18,922
'98 총생산액(D)	262,365	112,441	58,937	5,309	19,384	66,295
총경영비(E)	118,382	30,111	21,405	4,861	7,874	54,521
총 소득(F)	143,982	82,330	37,532	448	11,899	11,773
1998/96비율 D/A	1.010	1.114	0.936	0.770	0.785	1.032
E/B	1.183	1.164	1.161	1.221	1.215	1.204
F/C	0.902	1.097	0.843	0.154	0.653	0.622

다. 대책

- IMF 충격이 완화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장하고 농기업경영자금 등의 운영자금을 확대 공급해야 함.
- 고급 과채류, 축산물 등의 내수 감소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구매자금을 확대해야 함.
- 자본집약적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UR 농업협정문이 허용하고 있는 「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표 32 소득 추정을 위한 1996~98 지표회 변동

품 목	판매 가격	중자	무기 비료 ¹	유기 비료	농약	광열 동력	제재료	소농구	농기계	시설 장비	수리 유지	임차료	노임
쌀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겉보리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쌀보리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맥주보리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봄감자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가을감자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고구마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옥수수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콩	1.114	1.114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오이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노지호박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참외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노지수박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수박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토마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딸기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봄배추	1.1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가을배추	1.1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배추	1.1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봄무	1.2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가을무	1.2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무	1.2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금치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노지상추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상추	0.8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양배추	1.1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당근	1.2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노지고추	0.93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마늘	1.05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파	1.0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양파	0.6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생강	1.0	1.13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시설화훼	0.77	1.2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사과	0.9	1.05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배	0.78	1.05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복숭아	0.9	1.05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포도	0.9	1.05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감귤	0.453	1.05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감	0.95	1.05	1.455	0.9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한우	0.755	0.4	1.67	1.17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젓소	1.115	0.9	1.67	1.17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돼지	1.108	1.08	1.4	1.0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닭	1.31	1.05	1.58	1.05	1.25	1.85	1.2	1.1	1.14	1.12	1.1	1.05	1.09

주 : 1) 축산물의 경우는 농후사료비임.

Ⅲ. 농업관련산업의 파급영향과 대책

1. 농기계산업

가. 현황

- 농기계 시장규모는 1조 5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농기계 산업은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수입 제한 조치 등 육성정책에 힘입어 발전하였으며 논농사용 농기계는 대부분 국산화되어 있음.
-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해 경운기를 중심으로 중소형 농기계의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1996년 현재 경운기 91만대, 트랙터 11만대, 이앙기 27만대, 콤바인 7만대 등 총 320만대의 농기계가 보급됨.
- 호당 농기계 보급 대수는 경운기만이 일본 수준에 접근하고 있을 뿐 다른 기종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위에 머물고 있음.
- 농기계 시장은 대동, 동양, LG 3사의 비중이 높은 과점구조임.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의 경우 대동이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트랙터는 대동을 비롯한 상위 3사가 75%를 차지함. 이앙기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87%이며 콤바인은 대동, 국제 두 업체가 68%를 점함. 관리는 아세아의 점유율이 63%에 이룸.
- 농기계 산업의 문제점은 기술수준의 저위, 과잉시설에 따른 가동률 저위, 소량 다기종 생산방식, 수출전략 미흡, 품질관리 활동의 미비 등임.
- 필수 생산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IMF 체제에서의 환율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제조원가의 상승과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음.

나. 영향 및 전망

- 농기계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소형농기계(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보다 대형농기계(콤바인, 트랙터 등)가 높음. 따라서 환율 상승은 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원가상승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1996년 농기계 부품의 해외의존도는 전체 기종의 평균 12.4% 수준이며, 총 부품 수입액은 5,039만달러로서 환율 상승으로 발생하는 농기계 제조 원가부담 총액은 199억원(1,200원/달러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표 33 농기계 부품 및 완제품 수입 실적, 1996

단위 : 천달러

	부품	완제품	계
트랙터	16,691	-	16,691
콤바인	23,798	-	23,798
이앙기	5,799	-	5,799
기 타	4,102	615	4,717
계	50,390	615	51,005

- 환율이 1,200~1,600원으로 변화할 경우 농기계 제조원가는 1996년 대비 16~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34 환율상승에 따른 농기계가격 인상률 추정

단위 : %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환율 상승률	49.2	74.0	99.0
원가 구성비	12.4	12.4	12.4
원가 상승률	6.1	9.2	12.3
기타 상승률	10.1	12.9	16.2
계	16.2	22.1	28.5

주 : 1) 1996년 연평균 환율 805원/달러 기준.

2) 기타 상승률은 국산부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의 상승비율임.

- 환율 상승이 농기계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부품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인상 효과의 비중도 크지만 제철가격 상승 등에 의한 간접적인 인상요인에 의해 원가를 상승시키는 비중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금리의 상승도 농기계 산업의 제조원가를 상승시키고 농기계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1995년도 주요 5개 농기계 제조업체의 자금 차입 규모는 총 4,91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리가 7.6% 포인트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 증가액은 3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환율 및 금리상승은 농기계 생산원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환율 및 금리상승에 대응하는 경영혁신 방안으로서 업체간에 기종생산 전문화와 OEM(주문자 상표부착제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다. 대책

(1) 농기계 제조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환율 안정시까지 대형농기계의 부품 수입을 억제하고 부품 재고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부품 재고의 소진을 추진해야 함.
- 농기계 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기종 생산 전문화 및 OEM 확대, 나아가서 해외 수출선 다변화를 도모함.

(2) 정부의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 확대

- 단기적으로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기계업체의 금리 압박을 경감하고, 농기계 가격 상승을 억제함.

- 부품 국산화 추진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함.

(3) 농가의 농기계비용 절감

- 농기계의 신규 구입보다는 중고 농기계 구입 및 이용을 확대함.
- 작업후 농기계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기계 내구연수를 연장하도록 함.

2. 비료산업

가. 현황

- 1997년 화학비료의 생산규모는 약 6,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내수가 65%, 수출이 35%를 차지하며 생산업체는 남해화학 등 대규모업체가 3개, 중소기업체가 5개소로 총 8개임.
- 비료산업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아 환율변동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대부분의 비료가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정부는 농가의 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91년 이후 일반재정에서 가격차를 보전함.
 - 1997년 재정보전액 1,090억원, 1998년 비료가격 인상률 29.4%
- 비료의 상대가격이 1997년까지 하락하다가 1998년에는 상승할 전망이다.
 - 양비교환율 추세(쌀 1가마로 구입할 수 있는 요소비료 포대수)
: ('80) 10 ⇨ ('90) 34 ⇨ ('97) 36 ⇨ ('98) 30

표 35 비료가격인상과 정부 재정보조

	단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P)
가격인상요인	%	25	2.0	1.9	-10.4	11.2	10.9	11.7	74.8
가격인상률	%	0	5.0	0	0	3.5	0	3.9	29.4
재정보전액	억원	342	444	554	277	557	866	1,090	1,065

나. 영향 및 전망

- 비료매출원가에서 재료비의 비중은 약 60%이며, 환율 1,600원대에서 비료가격 인상요인이 37~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결제자금의 증가 및 금리상승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됨으로써 원가상승에 이중부담이 되고 있음.
- 농협의 비료 구매가격은 연간 1회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비료 판매가격은 연중 불변가격으로 적용되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분을 전부 업체가 부담함.

표 36 1997년 대비 비료원가 상승률 추정

단위 : %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재료비 상승률	20~25	23~31	30~45
금융비용 상승률	5~7	6~8	7~9
원가 상승률	25~32	29~39	37~54

주 : 인건비 등 기타비용 상승은 없는 것으로 가정

- 1998년 1월 원자재 연지급(Usance) 이자가 종전 6.2%에서 9%로 인상되고 당좌차월 금리가 9.7%에서 33%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금 조달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체의 자금부담이 증가함.

표 37 연평균 조달금리 수준의 변화

단위 : %

	1995	1996	1997	1998.1
당좌차월	8.86	9.00	9.74	33
연지급(Usance)이자	6.52	5.91	6.21	9

- 금융권의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 개설의 회피로 수입액의 대부분을 일람불(At Sight L/C)로 전환함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 수입차질이 우려됨.
- 금융권의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과 수출환어음(Nego) 발행 기피로 종합상사를 통한 수출업무 수행이 불가피함. 상사 대행에 따른 수출대금 결제의 지연과 수출비용의 증가로 판매수익이 감소함.
-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 농가의 비료 소비는 10~20% 감소될 전망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주요 비료수입국의 환율 상승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다. 대책

- 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재의 가격차에 대한 제정보전정책을 한시적으로 유지함.
- 비료가격 결정시 환율연동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환차손에 의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킴.
- 농협 중앙회가 연지급(Usance) 신용장 개설을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농약산업

가. 현황

- 1996년 농약 시장규모는 6,159억원으로 수도용 20%, 과수 원예용 48%, 제초제 29%, 기타 농약이 3%를 차지하며, 금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물량면에서는 정체상태에 있음.

표 38 농약 소비 현황

	단위 : 톤(성분)		
	수도용	원예 및 기타	합 계
1990	8,429	16,653	25,082
1995	4,867	20,967	25,834
1996	5,073	19,568	24,641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1997.

- 농약 제조업체는 32개사로 완제품제조회사가 15개사, 원제합성회사가 17개사임. 농약 완제품 시장은 한농의 시장 점유율이 3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동양과 경농으로 각각 15%인 과점구조임.
- 농약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제의 60%를 수입하고 국산 원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합성 원제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1996년 농약의 수입금액은 3억 3,200만달러인데, 이 가운데 원제가 73%, 합성원료가 24%, 완제품 3% 수준임. 1996년 농약 수출액은 5,700만달러로서 이 중 원제가 97.5%이고 완제품이 2.5%임.

- 농약 유통은 농협과 시중 농약상 계통으로 구분되는데, 1996년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13% 정도임. 농약매출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대형 농약 도매상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자금난 가중으로 부도의 가능성이 높음.
- 농약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 여건에 적합한 유망산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약하였음.

나. 영향 및 전망

- 환율 상승에 따른 농약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제조원가 인상요인은 환율수준에 따라 약 24~47%이고, 여타 경비의 증가를 감안하면 농약 제조원가는 35~60% 상승할 것으로 보임.

표 39 환율 상승에 따른 농약 제조원가 인상효과

단위 : %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환율 인상률 ¹	49	74	99
재료비 인상요인 ²	24	36	47
제조원가 인상요인 ³	35	48	60

- 주 : 1) 기준환율 805원(1996년 연평균 환율) 기준.
 2) 원제 인상요인만 반영(재료비 비중의 48%).
 3) 원제 이외에 제경비 인상요인 감안.

-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원제구매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원제의 적기 확보가 불투명하여 농약의 안정적 공급의 차질이 우려됨. 이는 적기 방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일부 시장규모가 작은 농약의 채산성 악화로 이들 품목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품귀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농약상의 매점매석 가능성도 있음.

- 금융업계의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중단, 외국 원재 공급사의 연지급 결제 조건 회피, 원료대금의 현금 결제 요구 등으로 농약업체의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 농약업체가 국내 완제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 국내외 기업간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해외업체는 국내 완제품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
- 농약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약소비의 감소는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대책

(1) 농약의 적기 안정적 공급대책 수립

- 농약업계에 농약원료 구입자금 용자를 단기적으로 확대하여 농약 공급의 안정을 기해야 함.
- 시장 규모가 작고, 채산성 악화로 제조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원재 및 농약을 비축하여 돌발 병해충 발생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적정 공급 수준을 유지해야 함.

(2) 자율 공동방제의 적극 장려

- 농협과 영농회사법인 등의 자율 공동방제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종합방제를 통한 농약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동 항공방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저비용으로 사전방제, 광지역 방제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방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3) 농약사용 절감을 위한 대체 농법의 개발·보급

- 농약 사용의 효율화 및 저투입농법 개발·보급으로 농약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감소시켜야 함.
- 내병성, 내충성이 강한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농약을 적게 쓰는 농법을 개발해야 함.

(4) 연구개발 투자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약의 자급기반 구축

- 농약산업은 살충제, 살균제 뿐 아니라 성장촉진제, 영양제, 동식물 관련 생리조절제 개발 등 첨단기술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서 민간기업의 신물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약의 자급기반 구축은 물론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종자산업

가. 현황

- 종자산업은 시장규모면에서 1,300억원 정도이나, 이를 이용한 채소류 생산액은 약 7조원에 달해 부가가치 창출이 큰 기술집약적 산업임.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채소종자는 육종 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수출 유망산업이기도 함.
- 1997년 현재 종자회사는 49개이나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5개회사 정도로써 이들의 등록 품종수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
- 1996년 채소종자 공급량은 3,927kl로 국내채종이 25.5%이고 나머지 74.5%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음.
 -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 부담율은 46.3%임.
 - 1996년 채소종자 수출은 1,200만달러, 수입은 1,800만달러이나 수입액 중 해외채종이 50% 이상으로 농업부문의 타 산업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가 적음.
- 국내업체에서 조달이 가능한 채소종자는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토마토, 양채류, 과수, 화훼 종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농가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침.
- UR 협상 이후 시장 개방으로 자본력이 약한 국내업체의 존립이 불투명한 상태임.
 - 1997년 일본 사카다사는 청원종묘를, 스위스 노바티스사는 서울종묘를 인수하고 일본 다끼이사는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잠식이 진전되고 있음.

나. 영향 및 전망

- 일부 시설농가의 영농기피 현상과 1998년부터 신품종 육성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종자산업법」이 발효됨에 따라 종자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양채류와 토마토, 수박, 참외 등 기호성이 강한 과채류 종자의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 종자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체의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자업체의 수익률은 10% 정도이나 은행차입의 곤란, 고금리, 관행적인 외상판매(8~10개월) 등으로 인한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 악화로 계획생산이 불가능하여 적기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 종자 수입시 현금결제 요구, 환율 상승에 의한 수입비용 상승, 해외채종시 비용 부담 증가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환율이 달러당 1,600원일 경우 103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함.

표 40 환율 상승에 따른 종자 수입업체의 추가부담

	1996년 환율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환율상승지수	100	149.1	173.9	198.8
추가부담액(억원)		51.3	77.3	103.3
- 해외채종	-	17.7	26.7	35.7
- 순수입		33.6	50.6	67.6

- 1996년의 해외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 환율이 1,600원일 경우 수입종자 가격은 45.7% 인상될 전망이다.

표 41 환율 상승에 따른 종자가격 상승

	1996년 환율 (805원/달러)	환율 시나리오(원/달러)		
		1,200	1,400	1,600
환율 상승지수	100	149.1	173.9	198.8
가격 상승지수	100	122.7	134.2	145.7
경영비 상승지수	100	101.1	101.7	102.3

주 : 경영비중 채소종자의 비중 5% 적용.

- 환율 상승으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 종자회사의 국내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종자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규모 외국 종자회사가 진출하게 되면 국내 유전자원 및 품종육성 관련자료 등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음.
- 환율 상승은 종자의 수출 증대와 국내품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환율이 달러당 1,600원일 경우 94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하며, 수입을 줄이기 위해 수입종을 국내 채종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증가할 것임.

다. 대책

(1) 국내 종자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단기적으로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업체에 대하여 종자 구매자금(연간 15억원), 신품종 육성자금(품종당 3,500만원 용자), 육·채종 시설자금 지원을 높여서 경영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함.
- 종자산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분야이고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품종 육성·보급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업체가 국제적 수준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어 수 있도록 외국 현지 법인이나 연구농장 설립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함.

(2)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체계 구축

- 유전자원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함.
 - 종자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국공립 연구소와 산업체간 공유체제를 확립하도록 함.

(3) 종자산업 관련 주체별 협력 체계 확립

-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자 수출 확대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함.
 - 종자업체 : 업체별 비교우위 품종의 집중 육성과 수출품목의 다양화
 -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 육성소재·육성방법 개발, 유전자원 수집
 - 정부 : 민간 주도의 종자산업 육성, 수출개척 지원

(4)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 강화

- 외국 종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품종 육성에 대한 연구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채류, 과수, 화훼종자 등의 품종 개발에 주력하여 농가의 종자구입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함.
- 동남아 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추 종자 등의 해외 진출을 추진함.
- 외국시장 진출시 업체 공동에 의한 물류 기지 확보 및 상호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함.
- 종자시장에서의 덤핑 판매를 지양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농민 사후관리를 강화함.

5. 사료산업

가. 현황

- 1996년까지 증가하던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7년에는 전년 수준인 1,580만톤이고, 시장규모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됨. 사료협회 회원공장의 시장점유율은 72%이나, 축협 및 비회원사의 생산 증가로 사료협회 소속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
- 1996년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76% 수준이나 곡물가공부산물 및 채유 가공부산물 수입분을 포함할 경우는 90% 이상임. 원료별 사용 비율은 곡류가 58%로 가장 높음.

표 42 사료원료 사용 실적, 1996

	단위	곡류	강피류	식물성박류	동물성단백질	기타	계
수량	천톤	9,169	1,639	3,346	140	1,527	15,821
비율	%	57.9	10.4	21.1	0.9	9.7	100
구성비	%						
국산	%	1.4	63.3	33.5	88.5	88.4	23.8
수입	%	98.6	36.7	66.5	11.5	11.6	76.2

- 1997년도 사료용 옥수수는 7,804천톤, 밀은 158천톤 수입되었고, 콩은 1,292천톤 수입된 것으로 추정됨.
- 농·축협이 배합사료 유통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 가격은 1980년부터 자율화되었으나 농협의 구매물량이 전체 배합사료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어 농협의 계통 구매가격이 시장가격을 주도함.

- 배합사료 가격이 유통형태, 제조업체, 소비자 구매단위, 포장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거래관행에 따라 할인 폭이 큼.

나. 영향 및 전망

- 환율 불안정에 따른 환차손과 외환부족으로 은행이 연지급신용장 개설을 기피하고 일람불로 요구하고 있어, 사료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됨. 농·축협은 수입신용장 개설이 가능하나 일반은행의 경우는 어려움.
- 국제 옥수수 가격은 하락세(10월 하순 대비 10.1% 하락)이지만, 환율이 상승하였고, 부산물원료(대두박 등) 가격이 60% 이상 상승한데다 원료를 현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됨.
- 부산물원료 및 사료첨가제 가격의 상승으로 싸고 품질이 낮은 원료로 대체 생산되고 있음. 사료효율이 낮은 사료가 공급됨에 따라 사육농가는 급여량을 늘려야하므로 사료비 인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 사료업체는 농가의 외상구입 결제를 현금거래로 제한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어 양축농가의 도산이 우려됨.
- 1996년 사료곡물 수입량이 965만톤(17억달러) 수준이며, 가공부산물과 기타 원료가 435만톤(11억달러) 수준으로 환율이 1,600원일 경우 2조 2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함.

표 43 환율 상승시 사료수입에 의한 추가부담액 추정

	1998년 환율 시나리오(원/달러)		
	1,200	1,400	1,600
환율 상승 (원/달러)	395	595	795
추가부담 (억원)	11,060	16,660	22,260

주 : 1996년 환율 805원/달러 기준.

- 배합사료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비중이 77%이며,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96%이므로 환율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은 26~60%로 인상될 것임.

표 44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요인

단위 : %

	1998년 환율 시나리오(원/달러)		
	1,200	1,400	1,600
환율 상승	34.8	57.3	79.8
사료가격 인상요인	25.7	42.4	60.0

주 : 1997년 8월 사료가격인상(890원/달러) 기준.

- 환율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1997년 11월 이후 약 40% 인상되었으며 추가 인상요인이 있음.
- 축산물 소비 감퇴와 생산비 상승으로 가축사육두수의 감소가 예상됨. 1998년도 배합사료 수요는 전년 대비 9~12% 감소되어 배합사료업체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 사료곡물의 수입은 1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다. 대책

(1)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강구

- 연지급 수입신용장이 농협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에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농협의 경우도 여신한도 확대를 사료협회 공동구매량에 대한 수입신용장의 지속적인 개설을 추진함.
-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자금(GSM-102), 수출자 신용공여 외상수입제도 등을 활용해서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입을 지속함.
-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함.
- 1977~84년에 시행된 바 있는 사료안정화기금의 설립을 검토함.

(2) 사료 원료에 대한 세율의 조정

- 사료 원료에 대한 저율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도 적극 검토함.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폐지는 사료가격을 인상하여 양 축농가에 전가되므로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3) 배합사료 시장의 경쟁체제 확립

- 환율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을 현실화하여 사료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사료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함.
- 배합사료의 품질 검사기능을 강화하여 사료효율 및 생산성을 유지함.

(4) 사료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축종별 전문사료 생산체제를 도입하여 업체·공장별 제품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사료생산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함.
 - 업체간 임가공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생산을 확대해서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가동률을 향상시킴.
 - 배합사료 제조시설의 규모 경제성(일일 생산능력 200~400톤)을 고려하여 신설 및 이전 설치시 적정규모를 유도하도록 함.
- 사료원료 수입다변화 및 다양화, 사료원료의 공동구매를 확대함.
- 지대포장을 줄이고 무포장(Bulk) 사료 공급확대로 비용 절감을 도모함.
- 사료원료 전용부두를 조기에 확보하고 사료 부원료 저장시설을 확충함.
-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저가 사료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6. 유통부문

가. 현황

- 청과물과 수산물의 일반적인 유통경로인 도매시장 유통경로는 5~6단계로 많으며, 소비자 지불가격 중 농가 수취율은 품목에 따라 20~60%로 낮은 수준임.
 - 1996년 청과물의 생산자조직 출하비중은 33%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집상 출하비중은 40%로 감소하는 추세임.
 - 공영도매시장 경유율은 43%, 유사도매시장 경유율은 24%, 기타 상인 경로 비중은 26%, 농장직판과 택배 등 직거래 비중은 7%임.
- 유통경로를 줄일 수 있는 물류센터, 직거래 등의 체제가 미흡하여 다양한 유통경로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산지에 물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동률도 낮아 소비지시장이 요구하는 규격품 출하와 공동출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생산자조직이 영세하여 시장 교섭력이 낮으며, 산지에서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직거래 추진기반이 미약함.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포장화율이 95% 이상이나 부피가 큰 무, 배추, 수박의 포장화율은 10% 미만임. 표준규격출하율은 대부분 농산물에서 20% 미만으로 포장화, 규격출하가 미진함.
-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물류센터와 대형소매점의 경쟁력이 민간업체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음.
 - 1996년말 현재 산지와 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농협의 소비지 유통시설은 집배센터 5개소, 수퍼마켓 360개소, 직판장 200개소가 있으나 지속적인 대규모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통업자의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유통마진의 증가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개선을 저해하고 있음.
 - 전국 청과물 법정도매시장의 법인당 연간 거래규모는 평균 약 490억 원 수준이며, 중도매인은 약 7억원, 재래시장 영세 소매상은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매우 영세함.
- 농산물 소매유통에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있으며, 외국의 다국적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 민간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소매업체가 빠르게 규모화·체인화되고 있으나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시설은 이에 대응한 규모화와 체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영향 및 전망

- 환율 상승에 따라 유가, 자재가격, 교통세 등이 상승함으로써 포장비, 운송비, 저장비 등 물류비가 상승하여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환율이 1,600원일 경우 청과물 유통비용이 8.7% 늘어나 소비자 지불가격 5.7% 증가와 농가 수취가격 4.0% 하락이 예상된다.

표 45 환율 상승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율

단위 : %

	1998년 환율 시나리오 (원/달러)		
	1,200	1,400	1,600
유통비용 증가	5.9	7.2	8.7
농가수취가격 하락	2.8	3.3	4.0
소비자지불가격 상승	3.9	4.8	5.7

주 : 1996년 연평균 환율 805원/달러 기준.

- 경기 침체로 농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유통업체의 취급량과 매출액이 감소함.
 -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기업체의 부도 속출과 소비자의 소비위축으로 분산물량과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함으로써 점포내 적체가 증가하여 농산물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음. 또한 소매상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도 또는 거래중단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부터 미수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의 차입이 어려워져 시장 출하자에 대한 정산을 제 때에 하지 못하고 있음.
- IMF 관리체제에 의한 재정지출 감소에 따라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경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산지 유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 지연과 규모 축소를 가져올 수 있음.
- IMF 관리체제에 의한 세수 증대조치에 따라 농산물 유통부문의 각종 조세 감면이나 면세 조치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됨으로써 생산자조직, 도매법인, 상인 등의 경영수지가 악화됨.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치와 중도매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가 폐지될 경우 법인과 상인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시장내 각종 수수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음.
 -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특례세율 등이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생산자단체의 유통사업이 위축될 수 있음.
- 자금시장 경색과 시중금리 및 정책자금 금리의 상승 등으로 유통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고 소매업체 등 유통관련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됨으로써 중도매인, 도매법인, 생산자조직, 수집상, 벤더(납품업자) 등의 미수금이 증가하고 대금결제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대책

(1) 산지 유통시설 조기 구축

- 주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투융자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모든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통한 통명 거래, 주문발주체제와 소비자 구매단위의 완제품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함.
- 산지유통시설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촉진 또는 산지유통의 보완을 위해 전문 유통상인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포장·상표화하고 무조건 위탁 및 공동계산제도(pooling system)를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함.
- 모든 농산물의 산지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재선별, 가공 및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대폭 인상함.

(2) 생산자조직을 경제사업 위주로 재정비

- 산지의 각종 경제사업 조직체의 정비 및 계열화체제 구축으로 규모에 따른 역할 분담이 되도록 함.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 판매 이전단계의 생산 및 상품화(선별, 포장)로 전문화를 유도함.
 - 협동조합 : 조합원을 농가대상 일반회원과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조직회원으로 구분하고, 조직회원을 주 대상으로 한 판매사업에 주력하도록 유도함.
- 생산자조직은 기능 전문화를 통한 판매활동 강화를 도모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농산물 판매부서를 확대하여 유통 전문화를 기함.
 - 협동조합의 기능별 전문성 부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협동조합간 수평적·수직적 통합,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운영을 적극 추진함.
 - 민간유통업체와도 전략적 제휴 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이용을 도모함.
- 생산자조직은 유통단계별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도소매시장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견제하고 유통 부가가치를 획득하도록 함.
- 공판장 및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로 도매유통의 효율을 제고함(자회사화하여 전문경영 유도).
 - 주요 도시에 하나로클럽 등 식료품 전문점과 식료품 위주의 할인점(하이퍼마켓)을 자회사 형태로 집중 개설하여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마진을 축소함.
- 품목별 또는 지역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유통명령제(marketing order) 또는 공급조절 기능을 포함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주산단지나 전국적인 공급조절능력 배양과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고, 가공, 수출, 기술개발 등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함.
-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직거래 촉진 및 유통마진 축소
- 도시별로 회원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직판사업 및 물류센터사업을 지원함.
- (4) 농산물유통 통합시스템 구축
- 수송차량 및 파레트 풀 시스템, 하역기계화 일관체계, 단위화물 적재체계(ULS) 구축 및 물류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확립하며, 이를 농수축협,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이 공동출자한 민간기구에서 운영하도록 함.

- 농수축협,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각 기관별 정보 D/B를 통합 연결하여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확립함.
- 중장기적으로 종합물류시스템과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한 농수산물유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곡물 등 농수산물 거래소, 선물시장 기능도 수행토록 함.

(5) 도매시장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영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 집배송시설, 전산경매시스템 도입, 공동정산기구 설치 등 현대화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도록 함.
- 중도매인의 법인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를 추진함.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안기금 용자는 현대화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함.

(6) 물류센터 건설 지원 강화

- 농산물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물류센터 건설에 대한 지원조건을 보완하도록 함.
 - 물류센터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물류센터 설치지역에 대한 부지형질 변경,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함.
- 물류센터의 입지는 도매시장 등 현재의 소비지 유통시설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도매시장이 없는 소비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직거래의 확대를 위해서 재정 투융자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수출입부문

가. 현황

- 농산물 수출은 1994~96년에 연평균 12.5% 성장하여 1996년 18억 3천만달러에 달함. 이중 시설채소, 당류, 면류 및 과자류, 축산물 등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수출 증가는 시설채소, 가공식품, 돈육 등 주로 새로운 수출 품목의 성장에 기인하며 인삼, 밤, 과실류 등 전통적인 수출 품목은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농산물 수입은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1994~96년에 연평균 18.5%의 증가를 나타내어 1996년 109억 4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음. 1996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91억달러에 달함.
-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은 사료곡물, 육류, 당류, 주류, 연초류 등이며 과실류와 채소류의 수입은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UR 협상에 의한 시장접근 물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표 46 농림산물 수출 현황, 1996

단위 : 백만달러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 (A)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낮은 품목 (B)	
채소, 화훼류	88.9	과 실 류	62.5
당 류	120.3	연 초 류	51.5
면류,과자류	335.4	인 삼 류	112.7
커피,코코아	77.3	한 약 재	12.2
축 산 물	260.0	주 류	82.8
합 판	53.5	기타임산(부산)물	351.7
기 타	35.9	기 타	184.6
소 계	971.3	소 계	858.0
총 계 (A+B) 1,829.3			

표 47 농산물 수입 현황, 1996

단위 : 백만달러

소득탄성치가 낮은 품목 (A)		소득탄성치가 높은 품목 (B)	
곡물류	3,291	과실류	323
(옥수수)	1,455	채소, 화훼류	206
(밀)	700	커피, 코코아	264
(콩)	455	연초류	424
유지 작물	363	한약재	132
사료, 박류	727	주 류	280
당 류	539	과자,음료	188
육 류	800	낙농품	389
합판,제재목 등	1,571	기타임산(부산)물	1,217
		기 타	226
소 계	7,291	소 계	3,649
총 계 (A+B) 10,940			

나. 영향 및 전망

-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낮은 품목(과실류, 인삼, 밤, 김치, 기타 전통식품 등)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시설채소와 화훼류 등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산물 수출업체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 환율 상승으로 수출물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수입업자의 가격 인하 요구와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수출단가 상승 효과가 상쇄될 전망이다.

-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호 농산물(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주류, 커피, 과자류 등)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는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곡물류, 육류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사료곡물의 경우 국내 축산업 위축으로 수입이 전년 대비 150만톤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육류, 과실류, 양념 채소류 등의 수입은 시장접근 물량 증가분 정도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
- 농산물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로 농업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할 전망이다.
- 이자율 상승과 긴축 재정·금융 정책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업체의 자금 부족 현상과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됨.
 - 농산물 수출업체의 운영자금 규모는 4,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금리를 1997년 12.5%, 1998년 18%로 가정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250억원에 달함.
-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수입대금 지급 기간이 단축되고 수출대금 회수 기간이 지연되는 등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전망이다.
 - 연지급신용장과 후불 송금방식이 증가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거래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환율 변동에 대한 규제 폐지로 사전 계약에 의한 농산물 수출의 위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가을 수출 상품을 봄에 계약하는 등 사전 계약이 많고 농산물 수출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환차손에 대한 위험성 증대는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 대책

- 수출용 농산물 수매계약 이행 촉진을 위해 「수출자조금제도(가칭)」를 도입하고 기존 「가격상승위험보험」의 보완이 필요함.
 - 국내 가격이 수출업체와의 사전 계약가격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가 수출계약을 철회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수매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고 수출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조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기존의 「가격상승위험보험」은 수출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수단이나 농림수산물 수출보험(3종류) 가운데 보험 가입이 가장 부진한 상태로 보험요율과 보상한도의 조정을 통해 활성화해야 함.
- 환율 변동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농산물 수출업체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관련 기금을 이용하여 수출용 농산물 수매자금, 시설자금, 유통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거래 위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함.
 - 농산물 수출의 경우 수확전 계약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영세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시행중인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에 「환율변동보험」을 추가하여 수출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 수출단지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신규 수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단지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난방비, 생산 기술, 수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에 적정 품목을 육성하도록 함.
 - 국내외 수요 기반이 튼튼한 농산물 위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도록 함.

- 인삼, 밤, 김치 등 주요 수출 농산물의 수출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 환율 상승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수출 시장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함.
 - 잠재적 수출 시장이 환율 상승을 계기로 수출 가능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시장정보와 통상외교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예, 동남아 시장에 대한 사과 수출).
 - 과실류의 주요 수출 시장인 대만과의 구상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대만에 수출하고자 하는 양념채소류 등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인삼은 품질(성가)에 의해 수출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나 고려인삼으로 위장 판매된 중국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중국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함.
- 농산물 수출업체 및 관련 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도록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을 활성화하고 동 조합에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운영하는 수출업체는 새로운 시장개척과 홍보 등 공익적 기능에 전념하도록 함.

IV. 농업재정금융의 파급영향과 대책

1. 농업재정

가. 현황

- 1993~97년에 농어촌특별세 신설과 42조원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조기 실현 등으로 농림예산이 증가함.
- 국가예산에서 농림예산의 비중은 1990년 8.0%에서 1997년 10.8%로 증가함.
- 농업 투융자예산의 84.9%(1992~96)를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함.

표 48 국가예산과 농림예산의 변화

단위 : 십억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국가전체예산 (A)	36,473	42,021	49,469	58,200	66,687	74,048	71,401
농림부문예산 (B)	3,021	4,386	5,623	7,615	7,906	7,980	7,686
B/A (%)	8.3	10.4	11.4	13.1	11.9	10.8	10.8

주 : 일반회계 + 재특회계 + 농특회계의 순계규모임.

자료 : 농림부, 「예산개요」, 각 연도.

- IMF 관리체제에 따른 세출 감축계획에 따라 농업부문 예산이 감축됨.
- 1998년 농림예산은 당초 8조 5,276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하여 8,420억원이 삭감된 7조 6,8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함.

- 기금 감축분을 고려하면 투융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약 1조 5천억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을 증대할 계획임.

나. 영향 및 전망

- 농업투융자 규모의 축소로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42조원 구조개선 사업이 1년 연장되고 농특세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농업구조개선이 지연될 것임.
 - 조세감면의 축소와 경기 침체로 농특세 세입은 1,749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 농업투융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농업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농업투융자 규모가 1조 5천억원 감소하면 농업 성장률은 약 0.9% 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다. 대책

(1)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조정

- 장기 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기하되, 단기적으로 농가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영자금, 운영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증액해야 함.
-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이나 개별 경영체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축소하도록 함.
- 긴축재정 하에서 농가경영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출촉진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조기 집행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2) 재원의 단순화 및 사업의 통폐합

- 품목별, 사업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집행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재정 투자는 농특회계로 통폐합하고 재정 용자는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 뒤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명만을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내 세부사업의 지원조건을 단순화시켜 실질적인 통폐합의 효과를 높임.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고를 형평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농업 비중과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함.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정 투용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회계 제도를 개편하는 등 포괄보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4) 이차보상제의 확대 실시

- 적은 재정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업경영자금 등 일부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상제를 확대해야 함.
-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일정 비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이 조달한 정책자금에 대해서 정부는 이차보상하도록 함.

2. 농업금융

가. 현황

-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용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5% 금리를 적용하는 자금과 1년 이내의 단기성 자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용자금 규모: ('96) 7조 2,411억원 ⇨ ('97) 8조 1,687억원 (12.8% 증가)

표 49 농림정책자금 용자예산 현황, 1997

단위 : 억원(%)

자금의 성격		금액
기간	1년 이내	50,871 (62.3)
	2~5년	17,302 (2.1)
	6~10년	19,211 (23.5)
	11년 이상	9,874 (12.1)
금리수준	0~3%	9,012 (11.0)
	5%	66,496 (81.4)
	5~8%	6,178 (7.6)
총 용 자금		81,687(100.0)

- 농업 금융기관도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1997년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의 비율 : 농협중앙회 9.24%, 축협중앙회 9.71%
- 회원조합간 합병 등을 통해 농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 IMF 권고에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저리융자지원이 허용되어 있음.

나. 영향 및 전망

- 농·축협 중앙회의 은행금융과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이 고금리 체계로 바뀌었으며,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정책금융의 금리도 인상됨.

'97. 11 '98. 2

- 농협중앙회의 여신금리(3년 정기예금): 12.5% ⇨ 16%
- 회원조합의 여신금리(조합원 기준): 13.4% ⇨ 16~18%
- 정책자금의 금리: 5.0% ⇨ 7.5%

- 조합들이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조달금리(상호금융 여신금리 및 중앙회 차입금리)보다 낮게 운용함으로써 신용사업의 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농가들의 자금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 경영구조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조합은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적자조합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 대책

(1) 농림사업 지원조건의 재조정

- 현행 농림사업의 지원조건은 IMF 관리체제 이전의 여건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개별경영체 관련사업의 지원조건을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함.

(2) 농업신용보증제도의 확대 운영

- 농업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함.
 - 농업신용보증기금의 운영 배수율을 현행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도록 함.
 -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함.

(3) 농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농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조합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조합 및 적자조합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함.

3. 농가부채

가. 현황

○ 농가부채의 규모

- 1996년말 농가호당 평균부채는 1,173만원이며, 1992~96년의 연평균 증가율 17.9%을 감안할 경우 1997년말의 농가호당 부채는 1,383만원 수준으로 추계됨.
- 1992~96년의 농가호수 감소율 및 농가부채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1997년말 농가부채 총액은 약 20조원으로 추산됨.

표 50 농가부채 추이

	단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호당부채	천원	5,683 (9.5)	6,828 (20.1)	7,885 (15.5)	9,163 (16.2)	11,734 (28.1)	13,834 (17.9)
농가호수	천호	1,641 (-3.6)	1,592 (-3.0)	1,558 (-2.1)	1,501 (-3.7)	1,480 (-1.4)	1,439 (-2.8)
총 부 채	조원	9.3	10.9	12.3	13.8	17.4	19.9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 1997년은 추계치임.

○ 농가부채의 성격

- 1996년말 현재 농가부채 1,173만원 중 생산성 부채가 78%인 914만원으로, 부채 내용면에서는 건실한 것으로 판단됨.
- 생산성 부채는 경영규모가 클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0.5ha 이하 영세소농의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 및 이자상환을 위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금융기관 부채가 증가하고 사채는 감소함.
- 영세 고령농가의 부채는 소액이나 고정화되어 있는 반면, 중대농의 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영위험이 높은 특성을 가짐.

표 51 농가규모별 부채규모, 1996

단위 : 천원, (%)

	생산성 부채	가계성 부채	차입금 상환 및 이자	계
0.5 ha	7,025 (73.4)	1,320 (13.8)	1,227 (12.8)	9,572 (100.0)
0.5 ~ 1.0	6,439 (74.8)	1,249 (14.5)	925 (10.7)	8,613 (100.0)
1.0 ~ 1.5	8,316 (77.5)	1,508 (14.0)	909 (8.5)	10,733 (100.0)
1.5 ~ 2.0	11,685 (78.2)	1,769 (11.8)	1,490 (10.0)	14,944 (100.0)
2.0 ~ 3.0	13,565 (80.3)	1,818 (10.8)	1,500 (8.9)	16,883 (100.0)
3.0 ~ 5.0	21,961 (79.9)	2,707 (9.9)	2,817 (10.2)	27,485 (100.0)
5.0ha 이상	38,473 (92.9)	1,553 (3.7)	1,407 (3.4)	41,433 (100.0)
평 균	9,136 (77.9)	1,458 (12.4)	1,140 (9.7)	11,734 (100.0)

자료 : 농림부.

표 52 차입처별 호당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1994	1995	1996
농가부채	7,885 (100.0)	9,163 (100.0)	11,734 (100.0)
금융기관	7,288 (92.4)	8,364 (91.3)	10,992 (93.7)
사 채	597 (7.6)	799 (8.7)	742 (6.3)

○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 대농일수록 부채규모가 높으며, 특히 고정자본 투자를 위한 생산성 부채의 규모가 높음.
- 고액 부채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구입, 건물 신·증축, 원예 및 축산농가의 시설자동화 등에 대한 투자에 따라 외부차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00만원 이상 부채농가 비중: ('94) 12.8% → ('96) 20.8%
- 3,000만원 이상 부채농가 비중: ('94) 6.0% → ('96) 8.3%

표 53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

	1994	1995	1996
부채없는 농가	18.6	19.5	18.9
200만원 미만	16.9	17.6	18.2
200~1,000만원	35.9	32.5	27.3
1,000~2,000만원	15.8	15.3	14.8
2,000~3,000만원	6.0	6.3	8.3
3,000만원 이상	6.8	8.8	12.5

○ 농가의 부채상환능력(1996년 기준)

- 농업자본수익율(농업자본순수익/농업자본액)은 평균 6.2%로 생산성 부채의 평균조달금리인 10.1% 보다 낮으나, 경영규모가 클수록 높아 짐(예 : 2.0ha 이상 농가 자본수익율 8.1%).
- 유동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이 1996년 55.4%로 계속 하락하여 단기지 급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대규모 농가에서는 단기상환능력이 낮음 (예 : 2.0ha 이상 농가 75.9%).
- 농가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은 1990년 6.3%에서 1996년 7.5%로 증가 하여 중장기 지급능력이 향상되고 있음.
-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1990년 42.9%에서 1996년 50.4%로 증가 하였음.
-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추세를 볼 때 부채의 심각성 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4 농가 호당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1994	1995	1996
부채 (A)	7,885	9,163	11,734
자산 (B)	141,901	158,171	168,901
현금,예·저금 (C)	11,725	15,733	15,603
A/B (%)	5.6	5.8	6.9
A/C (%)	67.1	58.2	75.2

나. 영향 및 전망

○ 농업자본 조달금리의 상승

-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긴축이 진행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단위 조합 상호금융의 이자율도 3~5% 포인트 인상되어 농가의 이자 부담이 증대됨.
- 외부자금의 차입의존도가 큰 축산농가 및 시설원예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용제한현상 심화

-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어 농가가 영농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등을 차입하지 못하는 신용제한 현상이 심화됨.
- 신용제한으로 인하여 자금상환 압박을 받는 농가는 영농규모를 축소하게 되므로 기투자된 고정자본의 과잉투자를 유발시킴. 특히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의 초기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농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

- 이자율 상승과 자본조달의 애로로 농가의 퇴출 증가
 - 영세농가가 감소하면 구조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전업농가가 퇴출할 경우 농업경쟁력을 악화시킴.
- 농가간 상호지급보증에 따른 연쇄도산 가능성
 -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시 농가간에 상호지급보증을 하는 경향이 많음.
 - 금융권이 일부 상환불이행 농가의 부채에 대하여 강제상환조치를 취할 경우 농가의 연쇄적인 파산이 예상됨.

다. 대책

(1)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

- 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농가의 상호금융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차입금 중 일부를 정책금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2) 단기 경영자금 지원 확대

- 농업경영자금을 확대하고, 특히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단기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함.
- 농협 등 농업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이차보전을 확대하도록 함.

(3) 고정자산의 매각 활성화

- 정책자금으로 고정자본을 투자한 농가가 영농중단을 원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동안 사업포기가 불가능함. 정부가 지원한 시설물이라도 능력있는 농가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정자본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비

역

정책연구보고 P26

IMF 관리체제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1998년 2월

발행 1998년 2월

발행인 / 박상우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인쇄 / 문원사(주)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